

보도설명자료

(’17. 6. 15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신재생 예산 연 2,056억, 3년간 날린 돈 2,518억”

(’17. 6. 15, 서울경제)

1. 기사내용

- 예결위 ‘17년 예산 검토보고서에 허술한 사업관리로 허공에 날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예산이 최근 3년간 2,5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
 - ‘13년부터 ‘15년까지 지원된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사업 중 중단·실패한 과제는 93건, 금액으로는 약 2,518억원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2013~2015년 신재생 R&D 종료 과제는 267건, 7,959억원
 - 이 가운데 성공 174건(5,440억원, 65.2%), 성실수행 63건(1,782억원 23.6%), 불성실수행·중단 30건(737억원, 11.2%)
 - 성실수행 과제에 대해서는 성공과제와 동일하게 성과활용 조사 및 평가 등을 시행
 - * ‘성실 수행’ 과제는 최종 개발 목표를 약간 미달성한 경우나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약간 낮은 경우로 정상적인 연구수행 과제로 간주하여 불이익조치 면제하고 재도전 기회 제공

- 불성실수행·중단 과제 가운데 255억원을 환수했고,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 동안 참여제한 제재를 시행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이진광 과 장 (044-203-5160)
황인택 사무관 (044-203-5176)
에너지기술과 박성준 과 장 (044-203-4540)
박성일 사무관 (044-203-4543)



Ministry of Trade,
Industry and Energy